

# 국민의힘의 민주당 ‘원 팀’ 따라하기

**대평로**



**황 대진**  
논설위원

최근 만난 민주당 의원이 “요즘 국민의힘이 ‘원 팀(one team)’ 얘기를 많이 한다. 우리가 그러다 망했는데 왜 따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원 팀’은 구성원이 힘을 합쳐 목표를 이루자는 일종의 구호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주로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에 대한 내부 비판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쓰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들은 원 팀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대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은 징계하고 당에서 내쫓았다. 대통령, 대표의 잘못을 지적하면 ‘문빠’ ‘개팔’을 동원해 못살게 굴었다. 말로만 원 팀이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이낙연 후보는 같은 당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싸웠다. 대장동 사건이 그때 불거졌고 결국 선거에서 졌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며 “총구는 바깥으로 돌리고 더 큰 원 팀으로 뭉치자”고 했지만, 그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자 찬성표 색깔 작업을 벌여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부 총질’에 민감하다. ‘이준석 사태’가 그래서 터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

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며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당을 원 팀으로 만들어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겠다”고 화답했다.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당·정·청이 하나로 뭉쳐 원 팀이 돼야 한다는 말은 옳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과 장관이 원 팀이 돼 국정을 운영하자” “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원 팀”이라고 할 때 원 팀이 그런 의미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로’, 반도체 투자

**野 내부 억압 수단이던 ‘원 팀’ 與서도 외치기 시작**  
**‘친윤 원 팀’ 아니라 ‘대한민국 원 팀’ 만들어야**

세액공제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장관이 말했는데 대통령실이 아니라 하고, 대통령실이 얘기했는데 정부가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장외교·외전비서관이 섞여진 이유는 교체되고 새로 임명된 조태용 안보실장은 “대통령실 전 구성원이 ‘원 팀’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원 팀’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처럼 들린다.

‘정재 원 팀’보다 ‘정치 원 팀’이 더 어렵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하며 “우리

는 원 팀”이라고 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안 의원은 “국정 운영의 적”이 됐다. 김 대표는 원 팀을 위해 비윤(非尹)을 등용하는 ‘연포당(연대·포용·탕평)’을 끌어냈다. 하지만 결국 주요 당직은 ‘친윤(親尹) 일색’이 됐다.

정치는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다. 힘 있고 지루한 일이다. 원 팀은 여기에 ‘빠스트 트랙’을 깔려는 시도다. 탄소리 맡고 지도부가 이끄는 대로 가자는 것이다. 다른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배척하기가 쉽다. 정치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원 팀을 외칠수록 지지세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민주당 원 팀이 실패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진짜 원 팀’은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는 게 아니다. 다양한 나이, 지역, 계층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때 청년과 노인, 수도권과 영남, 중도와 보수가 진정원 원 팀을 이뤘던 당이다. 60대 당원이 30대 청년을 대표로 뽑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동시에 승리하고 문 전 대통령의 총에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를 대선 후보로 영입했다. 그 결과 정권 교체를 이뤘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건 그때와 같은 다양성이다. 내분을 막겠다고 원 팀을 내세울수록 ‘진짜 원 팀’은 요원해진다. ‘친윤 원 팀’이 아니라 ‘대한민국 원 팀’을 만드는 게 집권당 역할이다.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김준의 맛과 성 134**

**외나로도 개조개 짓갱**

조개의 계절이다. 봄이면 남해와 서해 어민들은 물이 빠지는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캔다. 특히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진다는 영등사리에 통영과 거제, 여수고 고흥 주민들은 조개 중에서도 개조개를 탐한다. 개조개는 모래와 자갈이 섞인 갯벌에서 잘 자란다. 주먹만 한 개조개는 수심이 깊은 곳에 서식하며, 수관을 길게 내밀어 바닷물에서 먹이를 흡수해 섭취하고 뱌는. 이 과정에서 갯벌에 타원형 구멍을 남긴다. 바지락보다 큰 타원형 구멍을 보고 서식처를 확인하지만 큰 돌을 들어내고 파야 하기에 수월치 않다. 보통 잠수부들이 채취하지만 조자가 큰 곳에서는 바닷물이 많이 빠질 때 모기로 캐기도 한다.

고흥군 봉래면 참포마을 주민들도 영등사리에 맞춰 30여 명이 갯벌로 나왔

다. 나로우주센터 근처에 있는 어촌이다. 주민들은 개조개를 ‘우럭’이라 부른다. 갯벌에서 조개 채취를 허락하는 날은 일 년에 딱 사흘뿐이기에 친정어머니가 와도 포기할 수 없다. 노인들은 호미로 바지락이나 살조개를 채취하고, 젊은 사람들은 개조개를 판다.

마을에서 개조개를 가장 잘 잡는 조씨의 어머니가 전날 아이들이 잡은 개조개로 짓갱을 끓여주었다. 짓갱은 바지락을 주요 재료로 쓰지만, 영등사리에 귀한 개조개를 넣어 만들어 먹기도 한다. 마을 갯벌에서 개조개를 캐수 있게 가능한 일이다.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물바지락은 어촌에서 채취해 소득을 나누지만, 갯벌에서 채취한 바지락, 개조개, 해삼, 낙지 등은 주민들 밥상에 오른다. 우선



개조개 살을 삶아 건져 낸 후, 물에 쌀을 갈아 넣고 녹진하게 저으면서 끓인다. 그리고 개조개 살을 넣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파를 넣는다. 개조개가 품은 육즙이 풍부해 감칠맛이 바지락보다 훨씬 강하다. 조미료를 더할 필요가 없다. 함께 잡은 해삼 무침 외에 부추 무침과 오이 무침도 준비했다. 불철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 통영이나 거제에서는 개조개를 탕이나 구이 등으로 즐기지만 나라도에서는 짓갱을 만들어 먹는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社 説**

**‘친공 공관 방문’도 가짜 뉴스, 처벌 없고 이익 되니 끝나지 않는 것**

역술인 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하려고 후보 중 하나인 유근침도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작년 3월 한 달 치의 육참총장 공관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했지만 친공의 방문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 달 넘게 디지털 전문 수사관 10명을 투입, 영상이 덧씌워져 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모두 포렌식으로 복원해서 빠짐없이 확인한 결과라고 한다.

친공의 휴대폰 위치 기록도 분석했지만 총장 공관 부근에서 그의 행적은 나오지 않았다. 그와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공관 관리관과 통화한 기록도 없었다. 친공의 공관 방문을 처음 얘기한 당사자로 지목된 남영신 전 육참총장은 “(친공 방문에 대해) 공관 관리관에게 보고받고 얘기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공관 관리관도 군 조사에서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친공이 공관을 방문했다는 영상이나 위치 기록도 없고, 관련자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럼 친공이 어떻게 공관을 방문했다는 건가.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같은 허위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작년 말 “친공이 3월에 육참총장 공관에 다녀갔다는 증언을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남영신 육참총장이 친공이 공관에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고 알려졌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사실 확

인도 하지 않은 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주술의 나라, 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친공에서 시작됐다’ ‘친공이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에 개입했다’며 ‘친공 국정 개입설’을 제기했다. 제시한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이번에 친공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는데도 민주당은 사과나 입장 표명 하나 없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언론인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킬 주장을 하려면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친공 본인이나 그 주변, 등장 인물, 대통령실 등에 물어보고 그 답에 따라 다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을 떠나 사람의 기본 도리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은 사실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다. 그저 그럴듯하고, 대통령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덧씌울 수만 있으면 덮어놓고 주장하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 그러다 가짜 뉴스로 판명되면 모든 척한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도 똑같은 경우다.

이들이 가짜 뉴스 퍼뜨리기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것은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이익이 있다. 청담동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지지층은 어떤 가짜 뉴스도 무조건 사실로 믿으니 민주당이 가짜 뉴스에 책임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이 사람들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주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제대로 사실 확인을 않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퍼뜨린 사람에 대한선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여야 ‘1000원 아침밥’ 포퓰리즘 경쟁 ‘대학생 무상 급식’ 주장 나올 판**

‘1000원 아침밥’ 사업은 2017년 시작했다. 대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한다. 이것을 확대하려는 논의는 지난해 국민의힘이 시작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여당 지지율이 10%대로 급락하자 내놓은 MZ세대용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고물가로 힘든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남아도는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현재 1000원 아침밥 사업에 참여한 곳은 전국 대학 336곳 중 41곳이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 정책의 원조가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경쟁이 붙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이 지원 대상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민주당은 뒤질세라 “일반 대학만이 아니라 전문대 200곳으로 늘리자” “학기 중이 아닌 방학에도 적용하자” “하루 한 끼 아닌 두 끼로 하자”고

나섰다. 이렇다 ‘대학생 무상 급식’ 주장이 곧 나올 판이다. 이 사업이 확대되면 등록금 동결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지방 대학 사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지금 이 시각에도 1분에 1억27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올 1-2월 세수는 54.2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7조원 줄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정치인이라면 국가 재정 정상화에 머리를 싸매야 한다. 재정이 무너지고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대학생 아침밥이 문제가 아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나라 살림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 돈 풀고, 뿌리고, 파주는 경쟁만 한다. 이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 알 수 없다.

**野 내부 반성 “무당 유튜버, 팬덤, 가짜 뉴스, 저질이 합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이들을 설득·조정해낼 정치적 역량을 제 안에서 찾지 못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소방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 당에 영입된 초선이다. 나이도 35세로 젊다는 점에서 불출마 결정은 의외다. 다른 의원들이 만류했지만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여야 모두를 비판했지만 그가 민주당 소속인 이상 당 내부 상황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는 이낙연 계로 쫓긴다. 정치에 입문할 때는 당내에서 주류였지만 지금은 비주류가 됐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후 ‘개팔’ 등 강성 지지자들이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색깔 작업에 나섰다. 때

오 의원이 표적이 됐다. 그는 부결표를 던졌다고 스스로 밝혀야 했다. 이런 악성 팬덤도 그의 결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근 ‘개팔’ 등은 문자 폭탄을 보내는 수준을 넘어 카메라를 들고 이 재명계 아닌 의원 지역구 행사나 개인 일정, 집 앞까지 쫓아와 반말과 욕설을 퍼붓는다고 한다.

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날 민주당 내부 토론회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무당급 유튜버와 팬덤, 가짜 뉴스, 그리고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돼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당내 민주화와 사당(私黨)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한때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정당이고, 현재 원내 제1당이다. 그런데 지금은 가짜 뉴스와 악성 팬덤, 포퓰리즘에 기대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는 이것이 당의 체질로 굳어진 듯한 절망감마저 준다. 민주당에서 다음 총선에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을 망가뜨린 사람들일 것이다.

尹 대통령에 직언 < 28 >
newdaily.co.kr 뉴데일리

## "정치교체, '윤석열' 빼곤 다 바꿔라"

"기득권 언론 '여론몰이·자기정치'엔 눈길도 주지 말고... '국힘 물갈이', 죽을 각오하고 하라"

**■ 지지를 떨어지는 국힘,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상대로 대폭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국민의힘은**

△ 사상 △ 신념 △ 지적(知的) 인프라가 희미하다.  
△ 시대정신에 대한 투철한 인식도 흐릿하다.  
△ ‘누가 주적(主敵)인가?’에 대한 인식도 불투명하다. 이런 정당은 패자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주사파 일당은**

△ 삼류 수구 전체주의 집단이다.  
△ 도덕적으로도 파탄한 악성 사이버 종교 집단이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신도(信徒)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다.  
△ 선전·선동 △ 속임수 △ 퍼주기 매수 △ 갈라치기 △ 증오심 고취에도 윌등한 솜씨를 발휘해 왔다.

**■ '2024 총선' 지면, '1948 대한민국' 망한다**

이래서 ‘연체동물’ 국민의힘은 저 사이버 종교집단에 밤낮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 이 열세를 ‘자유 진영 우세’로 뒤집어 놓지 못하면, ‘1948년의 대한민국’은 망한다.

**■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실은 ‘정치교체’를 제시했다.

‘정치교체’는

△ 국민의힘 주력 교체와 당풍 쇠신 △ 공천 물갈이 △ 이 작업을 이끌 선두 트럼팀 등장이다.

**■ 어떤 유형의 인물들을 물갈이할 것인가?**

△ 운동권에 콤플렉스를 가진 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한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기득권 매체들의 ‘여론몰이와 자기정치’엔 눈길도 주지 말고, 오직 역사와 대화하며 고독한 결단을 내려가길!

**△ 웰빙족(族)**  
△ 기득권 언론이 띄어주는 내부 총질꾼  
△ 정치공학적으로만 생각하는 늘그늘같은 직업 정객  
△ 자유의 적(敵)에 대한 분노가 없는 자

**■ 어떤 유형을 발탁할 것인가?**


△ 주사파를 주적(主敵)으로 분명히 인식하는 자유의 전사(戰士)  
△ 좌익의 역사·궤변·거짓·교활·편협함을 한 마디에 KO시킬 신진기예(氣銳)·중견정예(精銳)를 뽑아 올려야 한다.

**■ 리딩 그룹부터 발탁하라**

이에 앞서, 이들을 선도할 매력적인 트럼팀을 데뷔시켜야 한다. 명징(明證)한 논리력과 문화적 세련성을 갖춘 투쟁력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아온 인재들, 이들을 적기에 불러 세워야 한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교수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가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컬럼으로 4월 8일 게재 되었습니다.